

매일묵상일기

가정에배

매일묵상일기 · 가정예배자료

의심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2026년 2월 7일(토)

- 찬송 (453장) 다함께
- 기도 가족 중에서
- 성경 (마 11:1~19) 다함께

“17.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 11:17)

- 묵상자료 인도자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앓은 병이가 걷고, 한센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들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물어 보게 했습니다. “3.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듣고 본 것을 그에게 알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의심 없이 확신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다른 어떤 예언자보다 훌륭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사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하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예언한대로 예수님보다 앞서 온 사자, 즉 엘리야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10.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는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 즉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임도 동시에 밝히셨습니다. “11.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반드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특히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무관심한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16. 이 시대 사람을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 이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상여 노래를 불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또한 당시 사람들의 이중성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자 사람들이 '그는 귀신 들렸다'고 폄하 하더니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자 '이 사람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며 세무원과 죄인들의 친구이다'라고 말한다고 비아냥거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모두 비난했으나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바르게 살았으므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행위는 결국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잘 했다는 칭찬을 듣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 기도 인도자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변함 없는 믿음으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칭찬들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다함께